

≡ 살며 생각하며 ≡

‘라라랜드’를 보고 나서



김준혜
뉴스타 부동산

딸과 함께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왔다. 매스컴에서 요란스럽게 오르 내리던 것이라 공연히 실족한 눈이 되어 버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내용은 대박 이랬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LA라는 대도시에서 배우가 되려는 여주인공 미아와 순수 재즈의 열정을 품고 사는 재즈 피아니스트 셉, 그들은 각자 꿈을 좇는 젊은 드리머지만, 현실에서는 번번이 오디션에 떨어지는 배우 지

망생이며 한낱 커피숍의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오늘을 산다. 셉 역시 식당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징글 벨’이나 치는 무력한 피아니스트일 뿐 자기 색깔의 재즈를 마음껏 연주할 공간은 아직 없다.

어느 해거름이 내리는 저녁,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감흥에 취한 셉은 재즈 음악을 흘러듯 연주하고, 그 음악에 이끌리어 들어선 배우지망생 미아, 드디어 서로의 운명과 마주하게 되지만 업소에서 허락되지 않는 재즈 연주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다. 우여곡절 끝에 운명처럼 사랑을 키워가게 되는 미아와 셉, LA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원에서 뮤지컬 특유의 노래와 춤이 벌어지고 ‘숲속의 왕자’나 ‘백마탄 기사’에서처럼 여자라면 한 번쯤 꿈게 되는 소공녀 감성을 영화는 한껏 고조시킨다. 특히 공원 천

문대 장면에서는 별이 흩뿌리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셉이 미아를 마주하여 춤을 추다 미아의 허리를 띄워 밀면 미끄러지듯 그대로 허공으로 솟아올라 빛어지는 덩실한 춤판은 압권으로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꿈처럼 이어진 사랑은 오래지 않아 파국을 맞게 되고 서로의 성취를 위해 헤어진 사랑 역시 다시 맺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셉은 세상의 환대를 딛고 자신의 이름을 건 순수 재즈클럽을 갖게 되고, 미아는 마침내 가난과 무명을 털고 스타가 되어 예쁜가정도 갖게 된다.

그러다 이야기는 필연적인 결말로 치달으며 운명은 한 번 더 그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아는 남편과 함께 아주 우연히 셉의 재즈클럽을 들어가게 되고 남편을 옆에 두고 마주한 옛사랑의 추억, 셉도 그녀를

알아보고 그들만의 추억이 담긴 재즈곡을 처연하게 연주하는 동안 미아는 그들 운명의 갈림길이 되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된다.

영화 곳곳에서 어디서 본듯한 장면들이 짜깁기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식상이 아니라 복고와 조영 속에 다시 살아난 일종의 빈티지 효과를 내고 있어 비교적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만든 감독이 겨우 갓 서른을 넘겼다는 것이 조금 못 미더웠지만, 꿈과 사랑을 노래하고 잊힌 사랑과 못내 잊히지 않는 사랑을 담아 아련하기까지 하다. B급 감성을 자극한다 하는 것도 어차피 삶 자체가 이류의 속성이 없으니 용인하기로 했다.

누구나 사랑과 꿈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을 삶의 고비가 있고, 때에 따라 큰 괴로움이나 죄책감 없이도 남루한 매듭이 있을 수 있다.

한 줌의 자부와 또 한 움큼의 부끄러움 속에 기억할 한살이(生)의 뭉, 대개 당시로는 최선이라 선택했던 길에 대한 깊은 회한과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여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눈물 어린 동경심으로 나이가 들어도 겪게 되는 불면의 밤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어찌하라! 못마땅한 대로 그것도내 삶이었음...

자신과의 끝없는 타협의 연속이, 그리고 그 퇴적과 망각마저도 삶의 한 속성임을 믿기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도 순리라고 믿고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들의 라라랜드는 꿈의 정형이 아니라 이미 변해가 버린 것이기에 가변과 역동의 개별적 함해임을, 또 그것이 우리들의 출생과 더불어 받아놓은 어떤 신성한 전제는 아닐까 하는 느낌을 왠지 버릴 수가 없다.

우리말 바꾸기

못지 않는(?)

‘못지않다’는 ‘못지않아하다’의 준말로,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를 뜻하는 형용사다. 이것을 동사인 줄 알고 ‘못지 않는’으로 쓰는 사람이 적지 않다. ‘못지않다’는 동사가 아니므로 ‘-는’으로 활용될 수 없다. ‘많지 않다, 굵지 않다’는 ‘많지 않은, 굵지 않은’으로 잘 쓰다가도 ‘못지않다’는 자꾸만 ‘못지 않는’으로 적는데 잘못이다. “바라 마지않는다”처럼 쓰이는 보조동사 ‘마지않다’는 ‘마지않아하다’의 준말로 역시 붙여쓴다. ‘못지않다’는 형용사여서 ‘못지않은’으로, ‘마지않다’는 (보조)동사여서 ‘마지않는다’로 활용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2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news@koreadaily.com 전화: 703-281-9660 (Ex. 111)

중영일보 The Korea Daily

www.koreadaily.com

구독신청/배달 703-281-9660 Ex.1 광고접수문의 703-281-9660 Ex.2 기사제보 및 불만/불만 703-281-9660 Ex.3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인 김진석 편집국장 박기찬 MD총국장 하태준 광고사업국장 신근재
대표전화 703-281-9660 편집국 703-281-9660 Ex.3 광고국 703-281-9660 Ex.2 관리국 703-281-9660 Ex.1 MD총국 410-461-4058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2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AP, Washington Post 구독료 월정 15달러 / 1부 50센트

워싱턴 중앙일보는 워싱턴 포스트사의 외의 협약에 따라 포스트 기사를 선별 게재합니다. 다만, 해당기사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있으며 번역 및 게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중앙일보에 있습니다.

By agreement between The Korea Daily and The Washington Post Company, The Korea Daily-Washington publishes selected articles from The Post in Korean on a regular basis. All right to the articles, including their copyrights, are reserved to The Post Company while all the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translation and the published translated articles remain with The Korea Daily.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8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독자 투고



전의석
국제인권변호사, 워싱턴DC

그들은 왜 동쪽으로 갔을까?

빛바랜 차들과 시가의 나라, 쿠바. 그곳에도 한인들이 산다.

작년 여름 쿠바 한인 이민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로니모 (Jeronimo)’ 촬영을 위해 쿠바로 떠났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약 1000여 명의 한인 후손들, 그들의 선조들은 왜 동쪽으로 동쪽으로, 그 머 나면 섬나라로 향했을까?

1905년 대한제국 시절의 한반도는 고난의 땅이었다. 패권의 시대, 열강들은 한반도를 유린했다. 피폐한 삶에 지친 각계각층의 사람들 1000여 명이 동쪽 땅 멕시코로 향했다. 4년 계약의 노동. 그들은 금의환향을 꿈꿨다.

멕시코에 도착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선인장의 일종인 에니켄

(용설란) 농장. 그 식물의 섬유질이 이곳저곳에, 특히 배의 바줄로 유용하게 쓰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약속된 임금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했다. 금의환향의 꿈은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계약이 끝난 1909년 그들의 수중에 남겨진 것은 없었고, 1910년 국권침탈은 그들의 조국마저 앗아갔다. 조국 없는 자들은 멕시코 전역을 떠돌았고, 그중 약 300여 명이 1921년 쿠바로, 다시 한번 동쪽으로 향했다.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쿠바는 약속된 땅이 아니었다. 반복된 에니켄 농장에서 고단한 삶. 그렇지만 조국을 향한 염원은,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 한인회를 설립, 없는 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했다. 쿠바의 한인 리더 임천택, 김구의 백범일지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임천택의 아들 임은조 (Jeronimo Lim). 쿠바 한인으로서 처음 법대에 입학, 체 게바라와 법대 동기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 혁명에 참여했다. 새로운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 몸 바쳤다. 그러나 한국을 잊지 않았다. 한인

후손으로는 최고위직인 농림부 차관을 역임한 후, 한국인의 뿌리를 이어가기 위해 흩어진 한인들을 다시 규합하고 한글학교를 창설했다. 우리는 그들을 몰랐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다.

쿠바의 3세대, 4세대, 5세대 한인 후손들. 외관상 그들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음을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잊지 않았다. 적어도 일부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말을 배우며, 저 머 나면 선조의 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쿠바인이다. 그러나 또 한국인이다. 내 편 네 편, 이편저편이 아닌, 통합을 꿈꾸며 자기의 지평을 넓힌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쿠바의 한인 이민사는 다른 나라들의 한인 이민사와, 또 모든 이민자의 이야기와 중첩된다. 험난한 조국의 삶,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 조국에 대한 그리움, 배척과 적응, 또 다른 고향의 발견, 뿌리의 인정, 그리고 새로운 자아의 탄생, 그 속에 고이 감춰져 있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 우리네들의 이야기. 그랬다. 그들은 그렇게 동쪽으로 갔다.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 전문병원

목 · 허리 통증 전문 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교통사고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보장권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원장 Dr. 김동국 D.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Manipulation Specialist

황계실 리스iting 전문 매물이 없습니다. 당장 팔아드립니다!

571-239-6054

NEW HOT 맥클린 \$410,000 Gate of Mclean Condo 방 2, 화 2, 차고 1, 피킹 1, 1,042sq, Condo fee \$392/m

Fairfax Ridge \$459,900 타운하우스, 방 3, 화 3.5, 차고 1, 시공에 없음 NEW! 전부 업그레이드, 전채마루 (66/286/50 West Oaks)

포토백 \$1,850,000 상글 방 5, 화 75 차고 3 Winston Churchill high	베데스타 \$1,595,000 상글 방 5 화 4.1 차고 3 Winston Churchill high	맥클린 \$1,399,990 새상글 방 4, 화 3.5 차고 2, 맥클린하이	맥클린 \$975,000 타운 2002년, 방 3, 화 3.5, 차고 2, 맥클린하이
--	---	--	---

애난테일 \$245,000 콘도 라파엘콘도, 방 2, 화 2

애난테일 각 \$189,900 3집 Under Contract 헤리티지 콘도 방 2, 화 1, 굿컨디션

패어팩스 \$999,990 새상글 방 4, 화 4.5, 차고 2, 웃슨하이

패어팩스 \$569,421 타운 방 3, 화 2.55, 차고 1

센터빌 \$599,900 Under Contract 방 4, 화 3.5, 차고 2, 1997년, 샌드빌 하이 세팅은 전채 마루, 걸림, 방고 환한 남향 집 전부 업그레이드, 박물관

센터빌 \$835,000 새상글 방 4, 화 5, 차고 2, 첸들리 하이

센터빌 \$365,000 타운 방 3, 화 255, 차고 1

이상준 240-426-7753

알링톤 Deli 현재 성업중, 근처 호텔 3개, 주 5일, 은퇴매매 \$350,000

세탁소 매매 DC 세탁소 공장, 픽업 부유한동네 20년 이상 영업중 주매상 \$15,000	세탁소 DC 안전지역 20년 성업중 세탁소+픽업매매 \$40만 / 건물 \$95만 주인 은퇴, 구매상, SBA 용자, 오너 Financing 가능	코인런드리 MD 볼티모어 \$850,000 (2,500sqft)	팡 매매 VA Manassas \$1,150,000 M2 zone, MT변경가능, 유틸리티 (가스제외)
--	---	-------------------------------------	---

패어팩스부동산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